

# 清末民初 中國知識人の 日本留學과 동아시아 인식\*

- 戴季陶와 李大釗의 일본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

김형열\*\*  
hyongyol@deu.ac.kr

## <目次>

- |                              |                                  |
|------------------------------|----------------------------------|
| 1. 머리말                       | 3.2 李大釗의 일본유학과 서구사상 수용           |
| 2. 清末 留日運動의 배경과 초기 유학 상황     | 4. 民國初期 戴季陶, 李大釗의 '日本觀'과 동아시아 인식 |
| 3. 辛亥革命 전후 戴季陶, 李大釗의 일본유학 활동 | 5. 맺음말                           |
| 3.1 戴季陶의 일본유학과 '日本論'         |                                  |

主題語: 중국지식인(Chinese Intellectuals), 일본유학(Studying in Japan), 李大釗(Lee Da-zhao), 戴季陶(Dai Ji-tao), 일본관(View of Japan)

## 1. 머리말

근대 동아시아 각국에게 근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목적물이었고 부강과 자강의 보증수표였다. 그리고 근대화는 곧 서구화이며 근대화의 표준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일느냐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화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으로의 유학은 그 문화 환경의 이질성과 거리 및 비용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파견이 힘들었기 때문에 洋務運動 시기 淸에서의 구미유학생 파견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은 꾸준히 서양에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에 淸과 朝鮮에서는 서양 유학의 대안으로 일본 유학을 상정하게 되었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을 통해 서양의 근대문물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을 서양과 동일시하면서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2AA017).

\*\* 동의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일본으로 학문적 여정을 떠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히 먼저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여 온전히 다른 지역 출신 유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곳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의 역사 문화 전통 속에서 서양의 국가들을 본받아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고자 한 일본의 노력과 민족 정신,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가 근대학문 속에 녹아들어 일본화 된 근대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배운 것은 단순히 서양 근대사상과 근대문화의 일본어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선택되고 체화된, 즉 일본화 된 근대 문물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 유학한 많은 타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는 일본발 동아시아상의 수용 또는 부정의 양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근대 중국지식인의 일본유학과 관련된 연구로서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일본유학 자체의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적 성장 과정 가운데 일본유학을 하나의 시기적 단계로 설정하거나 유학의 목적 또는 유학기간 언어습득 과정 등에 국한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戴季陶와 관련된 연구 중 이재광의 「戴季陶 사상의 형성배경」(『중국어연구』34, 2005)에서는 戴季陶가 일본유학을 가게 된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고, 일본에서의 혁명 사상 고취를 민족주의의 발현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장옥평은 「동경에서 적대로 - 신해혁명 전후의 戴季陶와 일본」(『중국근현대사연구』55, 2012)에서 戴季陶의 일본유학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가 일본에 대한 동경심을 적대감으로 변화시키는 사상적 배경에서 일본유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魯迅과 관련해서는 박길장의 「노신의 전기사상 고찰」(『조선대인문과학연구』19, 1997)에서 노신의 일본유학 과정과 유학시기의 민족의식 형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중국여성의 일본유학과 관련하여 윤미영은 「추근의 일본유학과 혁명활동」(『일본문화연구』44, 2012)과 「일본유학시기 하향응의 반청사상과 활동」(『일본문화연구』45, 2013)에서 추근과 하향응의 혁명활동을 고찰하면서 일본유학 시기 두 여성혁명가가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명하였다. 또한 정혜중은 「청말민초 중국여성의 일본·미국 유학」(『이화사학연구』39, 2009)에서 추근 등 근대 중국여성이 주로 유학한 實踐女學校를 중심으로 중국 여성들의 초기 일본유학 상황과 교육과정, 유학 후 진로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청말 일본유학에서의 일본어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양희정의 「청말 일본으로의 유학생 파견과 일본어」(『중국근현대사연구』54, 2012)가 있는데 주로 일본에서 설립된 중국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진행된 일본어 학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 성과의 바탕위에서,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신해혁명 전후로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 유학과정과 그 결과로서 그의 일본관 또는 동아시아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戴季陶는 일본으로의 유학 이전부터 일본에 대한 친분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전체 사회생활 중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이 차지한 비중이 매우 컸다는 자신의 술회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일본유학의 경험이 그의 사상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戴季陶는 귀국 후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가 일본유학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형성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李大釗의 경우 일본유학시기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李大釗가 이렇게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며 이후 일본이 제시하는 동아시아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말과 민국초기 각각 일본에 유학한 戴季陶와 李大釗의 경험을 통해 ‘유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II장에서는 청말 일본으로의 유학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청일전쟁의 패배와 중국 朝野의 자기반성, 일본발 ‘중국상’의 전파, 청 정부의 유학장려 정책에서 찾아보고자 하며, III장에서는 신해혁명 전후 戴季陶와 李大釗의 일본유학 원인과 學科 과정, 유학생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유학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 戴季陶와 근대적 정치관과 민족의식을 수용하게 된 李大釗가 일본의 식민정책 및 ‘대아시아주의’에 대응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清末 留日運動의 배경과 초기 유학 상황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대외적으로 일련의 군사, 외교, 정치 활동을 통해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동아시아 신흥 강자의 실력과 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었다. 1,2차 아편전쟁 이후 ‘天朝’로서의 인식은 부득불 철회하였지만 동아시아 맹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만큼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淸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대패한 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문물을 배워오던 조그마한 나라 일본이었고 그것

도 중국보다 근대화의 시작이 늦었던 지라, 洋務運動을 통해 군사적 자강에 집중해 오던 淸으로서의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하자 朝野를 막론하고 전국 상하가 엄청난 자극을 받았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망국론이 횡행하였다. 결국 변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적으로 維新의 길을 찾았고, 일본이 강성해진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戊戌變法運動은 바로 청일전쟁의 패배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에 대한 탐구 결과 일본이 강성해 진 것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문물을 배워오게 한 것이 크게 주효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일본 등의 제도적 개혁을 본받아 서양식의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변법으로 부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변법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인물들의 눈에 일본은 적국이긴 하나 중국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인식되었고 일본으로의 망명 또는 유학 이후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유학 운동을 선도하였다.

일본이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보고 중요한 인식전환을 가져온 사람은 양무운동 기간 중 일본 유학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던 張之洞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 외의 청조 지배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외국 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어 선진적인 생각을 지닌 대신들이 분분히 일본유학 사업에 대해 건의하였다. 그 중 盛宣懷는 1898년 《籌集商辦南洋公學折》에서 “上院 학생을 졸업 후 외국에 유학 보낸다면 일본의 해외 유학생처럼 각국의 대학에서 학식을 넓혀 크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상주하였고,<sup>1)</sup> 같은 해 御使 楊深秀도 상주문에서 일본 메이지유신이 성공한 것은 서양에 대량의 유학생을 파견했기 때문이니 중국의 변법은 반드시 일본의 경험을 배워야 할 것이며 유학 사업이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일부 軍政大臣의 건의에 따라 1898년 8월 光緒帝는 軍機大臣에게 다음과 같이 上諭를 내려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국책으로 정하였다.

해외로 유학하는 것은 서양보다는 동양이 낫다. 동양은 가깝고 비용도 절약되며 문자가 비슷하여 소통에 쉽다. 또한 일체의 서양서적이 모두 일본에 의해 선택, 번역되었다. 章程을 擬定하여 각 省에서는 유학생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각 部院에서는 유학하여 時務를 강구할 인원을 속히 파견하도록 하라.<sup>3)</sup>

이처럼 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유학생 파견을 국책으로 확정한 것은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 침략세력이 우수한 무기를 기반으로 중국을 쟁탈하여 청 조정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1) 舒新城(1981)『中國近代教育史資料』上冊, 人民教育出版社, p.155

2) 舒新城(1958)『戊戌變法檔案史料』中華書局, p.248

3) 朱有瓚(1987)『中國近代學制史料』第二輯 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p.17

처해 진데다가, 일본은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들며 문화와 풍속이 서로 비슷하고 언어장애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청 왕조의 통치를 유지할 인재를 배양하는 데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sup>4)</sup>

한편 청말 일본유학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단순히 일본을 통해 서방의 제도를 배우고 모방하지는 데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기까지 한 중국이 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을까 하는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즉 군사적 설비나 제도적 뒷받침 이전에 중국 또는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격에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의구심이 일본과의 비교 속에서 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기반성 또는 자기 의구심은 청일전쟁 전후 일본에서 전개된 ‘일본인론’이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선전한 일본의 미덕과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결점과 패배요인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후에 시작된 일련의 ‘일본론’ 또는 ‘일본인론’을 읽어보면 주로 국가관념, 근로관념, 위생관념의 세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근대국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국민관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조선 또는 중국과의 구별 짓기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즉 조선과 중국에는 근대적 국가관념 또는 국민관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sup>5)</sup>

1895년에 창간된 일본 최초의 대형 종합잡지 『太陽』<sup>6)</sup>에는 일본과 일본인의 특질을 논하는 글이 여러 편 실려 근대화된 일본의 우수성을 설파하며 그러한 특질에 미치지 못하는 조선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명국임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의 「日本人種の特性」(1권 9-10호), 기시아마 노부오(岸山能武夫)의 「日本人の五大特質」(2권 7-8호), 다케토미 도키토시(武富時敏)의 「日本國民の資力」(2권 7호), 다카야마 조고(高山樗牛)의 「日本主義を贊す」(3권 13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日本民族思潮の傾向」(8권 1-2호)<sup>7)</sup> 등이 게재되어 다른 아시아 각국과 차별된 ‘국가상’, ‘일본인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太陽』에 게재된 논설 중에 중국과의 비교에 의해 일본 국가와 국민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나카니시 규로(中西牛郎)은

4) 沈殿成(1997)『中國人留學日本百年史(1896-1996)』上冊, 遼寧教育出版社, pp.35-41

5) 劉建輝(2001)「근대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성립과 전개」『일본문화연구』5, p.51

6) 일본의 메이지와 다이쇼를 대표하는 종합잡지로 1895년 1월 창간되어 1928년 2월 제34권 제2호로 중단되었다. 발행 총수는 통상호 455책, 중간호 86책, 합계 531책이다. 주요 집필자는 당대의 관계, 교육계, 군인, 경제금융계, 언론계, 종교계, 정계, 문학예술계, 법조계, 의학계 등이 총망라되었다.(이규수(2006)「한국강점 직후 일본지배계층의 조선인식」『대동문화연구』54집, p.158)

7) 劉建輝, 앞의 논문, p.49

支那 국민이 국가의 관념에 이르기까지는, 심히 막연하고 명료하지 않으며 지나 국민은 불교로 인해 국가의 관념을 양성하지 못하였고, 또 지나 국민은 우리 일본 국민과 같이 황실과 국가의 관념을 결합하지 못하며 …… (일본에서는) 국가의 관념은 황실에 있어서 통일되는데, 지나 국민은 이 황실과 국가를 전혀 별개시하여 …… 그 주권자는 자국민이 되어도 외국인인 되어도 조금도 묻는 바가 없다.

- 중략 -

지나 국민이 국가의 관념에 희박한 증거는, 지나에는 이 국가의 관념을 표상하는 데 충분한 명칭이 없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개 지나에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면 단지 예의를 표하고 예로 대우받는 것을 가지고 표준으로 삼는 정도의 무형의 이상으로 하여, 지리적인 관념이 아니며, 또한 정치적인 관념도 아니다. 大清이라고 하면 단지 정부의 주권에 지나지 않을 뿐 …… 일본인은 일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으면 일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감정이 생겨나지만 지나 국민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sup>8)</sup>

라고 하여 국가를 통합하는 주권자가 부재하며 국민 또한 국가 관념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야마 노부오(岸山能武夫)는 중국인의 근로와 위생 등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특히 강조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격한 바로,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뛰어나고 청결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나의 마음속에는 지나인 또는 조선인 즉 다른 동양인에 비교할 때는 어떠한가, 일본인과 어느 쪽이 청결한가 하는 의무가 있었다. 다행히도 이번 전쟁 덕분에 나는 요동, 조선 등을 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저쪽에 가서 청결이 어느 정도까지 수행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자니, 이것은 의외로 요동반도라는 것은 도저히 말로써 그 불결함을 형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 조선에 가보니 요동보다는 조금 나았다. 그러나 일본의 집에 비교해 보면, 조선의 집은 실로 돼지우리과 같은 것이었다. …… 이 청결이 일본인의 특질이며, 서양에도 없고 또한 동양에도 없는 실로 일본인 특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sup>9)</sup>

중국인의 위생관념과 더불어 그 품성 및 국민성에 대한 평가는 비판을 넘어서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찬 글귀로 남겨져 있다. 즉 후지타 쓰루미네(藤田劍峯)는 중국인의 자격과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8) 中西牛郎(1896)「支那帝國の真相」『太陽』二卷一號, 博文館

9) 岸山能武夫(1896)「日本人の五大特質」『太陽』二卷七,八號

지나인 품성의 나쁜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이 자존에 지나지 않고 보수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의 공에는 소홀하며 개인의 사리를 중시하고 교활하고 산만하며, 야비하고 인색하며, 고지식하고 이둔하여 통하지 않고, 게다가 허례를 중시하고 인사치레에 익숙하고 또 일반적으로 불결함을 꺼리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돼지라고 할 수 있으며 칭하여 찬(찬)이라고 하고, 심하게는 이를 금수와 비교하고 또 세계최하등의 국민이라고 평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이 뿐만 아니고 전쟁터에서 보이는 병사의 행동에 있어서도 일본과 중국 양국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즉 프랑스 장교가 『프랑스 장교회 잡지』에 기고한 기사를 초역한 글을 보면, 일본인 병사가 ‘武勇絶倫’인 데 반해 중국의 병사는 ‘불규칙의 무리’이며 ‘몸을 다하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동양에 다른 두 인종, 특히 구별되는 두 나라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 인구가 적은 한 국민은 투쟁하는 성격에 넘치고 외모도 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국민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sup>11)</sup>고 하여 은연중에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sup>12)</sup> 물론 이 글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쓰인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번역문이 잡지에 선별되어 실린 것을 통해 당시 일본인이 중국 병사와 그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묻어있다고 생각된다. 즉 나약한 중국 병사의 이미지와 용맹한 일본 병사의 이미지가 서로 비교되면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일본의 ‘우월성’이 두드러지게끔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형성된 차별적 ‘중국상’은 일본 내부에서의 국가정체성 및 국민성 정립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국 지식인에게도 수용되고 내면화되었다.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전승국인 일본의 장점과 패전국인 중국의 결점이 자기반성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예로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변법자강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梁啓超는 중국의 국민성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들, 즉 「國民十大元氣論」(1899), 「中國積弱溯源論」(1900), 「十種德性相反相成義」(1900), 「論中國國民之品格」(1903) 등을 발표하여 일본에서 제기한 ‘중국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중 특히 「論中國國民之品格」에서는 중국의 국민 품격으로서 ‘애국심의 박약’, ‘독립심의 미약’, ‘공공심의 결여’, ‘자치력의 부재’의 4개 조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중국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유학 경험자인 戴季陶는 『日本論』에서 당시 일본의 대중국정책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으나 비난 논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본인이 제시한 ‘일본상’인 “미를 사랑하는 국민”, “崇武”, “平和”와 같은 일본의 ‘미덕’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이처럼

10) 藤田劍峯(1899)「支那人の資性を論じ對支那策に及ぶ」『太陽』四卷五號

11) 藤田劍峯(1896)「支那兵及日本兵」『太陽』二卷二十,二十一號

12) 劉建輝, 앞의 논문, pp.55-56

아시아 각국과 차별되는 일본의 근대적 국가관과 국민성은 곧 본받을 만한 근대적 가치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본은 서양의 근대적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근대성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지식인들이 형성한 일본론의 전파와 중국 지식인들의 자기반성 분위기, 청 정부 내 일본유학 사무의 국책 추진, 일본의 적극적 중국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이 합쳐져서 일본으로의 중국 유학생 파견이 드디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1895년 주일본 공사로 발령받은 裕庚은 1896년 일본의 文部大臣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의 도움으로 청 정부에서 모집한 13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것은 東京師範高等學校 교장을 맡고 있던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sup>14)</sup>로, 언어능력이나 기초학문이 부족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관립학교 대신 새로이 私塾을 설립하여 교육시켰다. 이것이 청말 최초의 일본유학생 파견이었다.<sup>15)</sup>

1900년 이전 청 정부는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국책으로 확정하였지만 戊戌變法, 義和團運動 등으로 정국이 불안하여 적극적으로 유학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01년부터 청 정부는 일본유학 사무를 국책으로 인식, 확립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시, 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 지속적으로 실시, 제정된 일련의 정책은 일본유학 운동을 강력하게 끌고나가는 힘이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한 정치적 배경으로는 바로 ‘新政’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신정 시기 朝野의 변법 요구에 부응하여 학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정식으로 유학장려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일본을 배우는 것이 곧 서방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여 일본을 모방해 제도 개혁을 진행하였다.<sup>16)</sup>

1901년 新政의 上諭가 내려져 朝章, 國故, 吏治, 民生, 學校, 軍政, 財政 등에 대한 변법의 강구를 요구하자<sup>17)</sup> 湖廣總督 張之洞은 兩江總督 劉坤一과 연합하여 ‘江楚會奏變法三折’을 상주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상주문이 〈變通政治人材爲先, 尊旨籌議折〉로 문무학당 설립, 文科 개정, 武科 폐지, 游學 장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張之洞, 劉坤一은 “獎勵游學”條에서 일본에 유학하면 교육방법이 가장 뛰어나고 문자가 서로 비슷하며 교과과정이 비교적 속성이

13) 劉建輝, 위의 논문, pp.59-60

14) 저명한 교육자로서 중국근대사의 거물인 黃興, 魯迅, 陳獨秀와 같은 인물을 제자로 가르쳤던 사람이다. (윤미영(2012)「추근의 일본유학과 혁명활동」『일본문화연구』44, p.475)

15) 양희정(2012)「청말 일본으로의 유학생 파견과 일본어」『중국근현대사연구』54, pp.45-46

16) 桑兵(2011)「신해정변과 일본」『중국근현대사연구』52, p.49

17) 沈殿成, 앞의 책, pp.92-93



고 유럽 유학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행로일정도 훨씬 빨라 좋은 점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또 유학은 중국내 학교 설립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으니 장려해야 하고, 유학에서 습득할 전공은 응당 사범계열로 정하여 돌아와 小中學에 교원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官費 유학은 많은 수를 지원하지 못하니 自費 유학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張之洞, 劉坤一의 상주문은 청 정부의 유학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 조정은 1903년 張之洞에게 ‘유학장려 章程’을 작성하게 하여 《約束鼓勵游學生章程》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章程은 유학 졸업생에게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유학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으로의 유학생파견은 서태후의 신정 하에서 각종 교육근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규모를 대폭 키워나갔다. 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 부족, 근대학문을 가르칠 교원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청 정부의 유학 장려정책에 힘입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파견 유학생 수는 1902년 500명, 1903년 1,000명, 1904년 1,300명에 이르렀고, 특히 러일전쟁과 과거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1905년 이후 그 수가 급증하면서 1905년 8,000명, 피크인 1906년에는 10,000명을 넘어설 정도였다.<sup>20)</sup>

청말 중국의 일본 유학운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학습 내용이 대부분 專門學科가 아닌 普通學科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 성격이 대부분 정식교육이 아닌 속성교육이었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중국의 교육상황과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1903년에 근대적인 新學制를 제정한 중국에서는 각지 新學堂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속성교육을 통해 보통학과의 내용을 습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일본유학의 주요한 성격이 되었던 것이다. 1901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 각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중국유학생의 총수는 2,831명으로 1906년 한 해 동안 일본에 체류한 중국 유학생수(7,285명)보다도 적었다.<sup>21)</sup> 이는 청말 일본의 전문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중국유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 속성과정과 보통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 또한 일본에 유학한 많은 학생들이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언어만을 공부했거나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이었다. 속성교육을 통해 보통학과를 공부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면서 각종 폐단이 연출되었다. 일본의 학교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속성과정

18) 『張文襄公全集』卷51, 奏議 51

19) 양희정, 앞의 논문, pp.46-47

20) 實藤惠秀(1960)『中國人日本留學史』くろしお出版, p.47, 64 ; 阿部洋(2002)『中國の近代教育と明治日本』龍溪書舎, pp.70-71

21) 實藤惠秀 著, 譚汝謙, 林啓彦 譯(2012.4)『中國人留學日本史』北京大學出版社, p.113

을 내놓으면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루기 어려웠고, 심지어는 며칠간의 강의만으로 수료증을 발부하여 마치 장사하듯이 유학생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마저도 증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얕은 생각에 이러한 ‘상점식 학교(學店)’에 몰려들었다.<sup>22)</sup>

1906년 이후 청 정부는 속성교육을 통한 보통학과의 이수가 중국내에서 더 이상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며 그 폐단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는 상황에 비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章程을 제정하고 유학생의 자격 및 파견 조건을 제한하여 유학생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청 정부는 일본과 ‘五校協議’를 체결하여, 1908년부터 15년간 일본의 다섯 개 학교<sup>23)</sup>에 매년 일정한 학생(총 165명)을 유학시키는 조건으로 학생 1인당 200元에서 250元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협의가 실시되자 1908년, 1909년, 1910년의 3년 동안 다섯 개 학교에 유학한 학생은 460여명으로 그 중 1909년에만 158명이 유학하였다.<sup>24)</sup> 이처럼 청 정부에서 유학생의 파견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 정부의 요청으로 1905년 일본 정부가 유학생의 신분과 자격을 단속하는 〈取締清國留日學生規則〉을 내놓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 1906년 이후 일본유학 운동은 점차 쇠퇴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일본에 유학한 학생이 6,797명이었던 것이 1911년에는 3,328명으로 감소하였다.<sup>25)</sup> 1908년 9월부터 1911년 9월까지 중국유학생들이 졸업한 일본 학교는 모두 135개 학교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졸업한 다섯 개 학교는 早稻田大學(368명), 明治大學(379명), 法政大學(377명), 士官學校(363명), 中央大學(100명)으로 다섯 개 학교의 졸업생 수는 모두 1687명이었다. 이 시기 고등전문학교 이상에 입학한 중국유학생이 전공한 학과는 醫科, 藥學科, 法科가 가장 많았다.<sup>26)</sup>

1911년 武昌起義 후 혁명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에 유학하던 학생들 대다수가 유학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유학생 수가 일시 감소하였으나 신해혁명 후 일본유학 운동은 다시 성행하였다. 중화민국이 건립된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 중에는 중화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유학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던 가 하면 민국건립 후 혼란한 사회상황에 불만을 품고 중국을 떠난 자도 있었고, 민국창립에 공훈이 있는 자와 어쩔 수 없이 망명한 자도 있었다. 1914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에서 공부한 官費 유학생의 총 수는 1,107명명이었다. 전공학과와 인원수를 살펴보면 工科와 師範科의 학생이 각각 290명 137명으로 수량으로 볼 때 1위와 3위에 해당했지만 학과의 내용이 광범위

22) 實藤惠秀 著, 譚汝謙, 林啓彦 譯, 위의 책, p.60

23) 第一高等學校, 東京高等師範學校, 東京高等工業學校, 山口高等商業學校, 千葉醫學專門學校

24) 沈雲龍(1979)『清末各省官自費留日學生姓名表』, 文海出版社, pp.271-283

25) 沈殿成, 앞의 책, p.196

26) 沈殿成, 위의 책, p.203

하여 세부적으로 다시 여러 개의 科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각각 144명과 110명의 학생이 수학한 醫科와 法科는 학과의 내용이 단일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몇 개의 科로 분류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한 학과라고 볼 수 있었다. 文科와 理科를 공부한 학생은 각각 9명과 17명으로 인원수가 가장 적었다. 이 시기 일본에 유학한 중국 학생의 수는 자료에 따라 그 수가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일본에서 공부하였다. 『中國留學生教育小史』에서는 1913-1914년 동안 중국 유학생 수가 적어도 5,6천 명에 달했는데 이 기간은 러일전쟁 전후의 일본유학 피크시기에 다음 가는 유학 성행기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의 유학생 수가 1-2만에 달했다고도 하였다. 『中國人日本留學史關係統計』(佐藤尙子, 日本國立教育研究院, 1978)에 따르면 1912년 文部直轄 학교와 公私立 학교에 유학한 인원 총계는 1,437명으로 그 중 여학생은 52명이었고, 1914년에는 총 3,796명이 유학하였으며 그 중 여학생은 95명이었다. 1914년부터 1915년까지 미국에 파견된 관비 유학생 수 5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일본에 파견된 관비 유학생 수(1,107명)는 그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sup>27)</sup>

### 3. 辛亥革命 後 戴季陶, 李大釗의 일본유학 활동

#### 3.1 戴季陶의 일본유학과 ‘日本論’

戴季陶는 14세(1905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가 일본유학을 선택한 것은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이 있었다. 객관적인 요인은 일본유학이 중국 청년들의 유일한 출구였고 당시 일본유학 운동이 정점에 다다르며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던 시대적 배경에 있다. 시대적인 배경 외에도 戴季陶가 일본으로 간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13세인 1904년 成都 客籍學堂 고등과에 입학한 시기 戴季陶는 학당 감독이 학생 석차를 불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항의하여 결국 학당에서 퇴학당했을 뿐 아니라 四川省의 어느 학교에도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戴季陶는 이름을 바꾼 후 교회가 운영하는 華英學堂에 입학하였지만 겨우 3개월 만에 조사를 받고 다시 제적되었고<sup>28)</sup> 이 시기 ‘몸 둘 곳 없는 학생’으로 방황하게 되자<sup>29)</sup> 자연히 외국 유학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학습기회를 잃고 곤경에 빠진 戴季陶는

27) 沈殿成, 위의 책, pp.293-298

28) 李雲漢(1979)『戴季陶』(王壽南 編, 『中國歷代思想家』第55卷), 商務印書館, p.8

29) 戴季陶(1959)「余之讀書記」(1933); 陳天錫, 『戴季陶先生文存』第2卷,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p.542, 547

客籍學堂의 일본인 교사 코니시 미나(小西三七)을 따르면서 통역도 하고 물리, 화학도 배웠는데<sup>30)</sup> 이 또한 그의 일본유학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905년은 중국 역사상 전례 없던 일본유학 열풍의 최고 전성기였다. 戴季陶는 도쿄에 도착해 최초 2년 동안 모 사범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일본어에 대해 철저하게 훈련하였는데 이때부터 매일 아침 일본어 신문을 읽는 습관을 키워 신문을 통해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풍속 등의 여러 방면에 대해 배웠다. 또 중국고전을 학습하던 시기의 방법과 국학소양을 잘 활용하여 일본 고전 문장을 공부함으로써 훗날 『日本論』 등의 저작에서 일본의 건국이념과 정신구조 등을 분석해 내는 데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戴季陶의 이러한 학습방법과 학습내용은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일본 문명에 대해 무관심하여 언어 자체와 서양학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극히 대조적이었다.

1907년 가을 戴季陶는 日本大學 專門部 法律科에 입학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學部奏定日本官立高等學堂收容中國學生名額摺』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대학 입학자는 유학생 중에 겨우 1%뿐이었다.<sup>31)</sup> 日本大學은 大學部, 大學豫科, 專門部, 高等專攻科, 高等師範部, 大學部商科附屬殖民科, 大學附屬外國語專修部를 두고 법률학, 정치학, 경제학, 상업학, 문자 등 학술지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1906년 1월 개정된 사립 日本大學의 학칙에 근거하면, 戴季陶는 매년 4월 학기를 시작하여 1년에 6개 과목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매일 오후 4시 이후 수업을 시작해야 했다. 수학 기간은 3년이었고 봄, 여름, 겨울 세 차례의 방학이 있었다. 이 외에 졸업고시는 매년 3, 6, 12월 세 차례 시행되었다. 시험의 합격점수는 매 과목 50점 이상이었다. 학비에 관해서는 수업료가 2원이지만 ‘貧困篤學’한 학생이라고 판명되는 자는 학비를 특별히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sup>32)</sup>

戴季陶가 다니는 학과에 개설된 과목은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학, 재정학, 법학통론, 로마법이었다.<sup>33)</sup> 1907년 戴季陶가 日本大學에 입학할 당시 專門部 法律科의 교수로는 카케이 카즈히고(算克彦),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테라오 스스무(寺尾亨),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있었으며, 그 중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카케이 카즈히고(算克彦)였다. 담당과목은 헌법, 법학통론(카케이 카즈히고), 행정법범론(미노베 다쓰키치), 국제공법(테라오 스스무), 로마법(도미즈 히론도) 등이었다.<sup>34)</sup> 하지만 그가 日本大學에서 유학한 기간은 오래 되지 않았고

30) 戴季陶「余之讀書記」, 위의 책, p.547

31) 「限定游學辦法」『學部奏咨輯要』第一篇(實藤惠秀, 『中國人日本留學史』くろしお出版, 1981, p.87)

32) 日本大學 編(1982)『日本大學九十年史』上卷, 日本大學, p.217, 295, 297

33) 日本大學 編, 위의 책, p.318

34) 日本大學 編, 위의 책, pp.354-356

1909년 여름 18세의 戴季陶는 경제적 원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sup>35)</sup>

戴季陶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특히 법률과 국제경제를 열심히 공부하였는데<sup>36)</sup> 이는 당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滿清 왕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정치의식은 점차 굳어져 갔다. 戴季陶와 중국유학생들이 갖는 이러한 관념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나이에 일본유학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민족주의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적개심과 일본의 성장배경 및 국가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근대화에 도달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깊이 몰두하였다. 대계도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중국유학생들이 마침 어떻게 하면 중국병을 고칠 수 있는가를 연구검토하고 있던 시기였다. 직접적인 수업과 번역서적을 통해 젊은 혁명가들은 서양과 일본의 실제정치, 경제구조 이론을 습득하였고, 사회다원주의를 통해 민족투쟁 운동을 촉구하였다. 또한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는 유학생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유학생들에게 서양 政體의 우수성과 국가실력을 충분히 입증시켜주는 증거였던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선결업무가 되었다.<sup>37)</sup>

戴季陶는 일본유학시기 자주 散紅生이라는 필명으로 각 신문사에 글을 발표하였고<sup>38)</sup> 중국 유학생동창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추대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진행하였다. 그가 『日本論』이란 책을 쓸 때 말하길,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적지 않은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었다. 혹은 나의 사회생활이 중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았다.”<sup>39)</sup>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戴季陶는 일본과 인연이 깊었고 그로부터 받은 영향 또한 컸다. 그는 『日本論』에서 일본 維新의 성공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절실한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人民共通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인은 또한 역사적으로 ‘일본민족통일의 발전능력이 이미 확실하게 구비되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민족의 통일된 사상, 통일된 신앙, 통일된 역량’, 이것이 바로 일본의 유신이 성공할 수 있는 최대 요소인 것이다.<sup>40)</sup>

35) 장옥평(2012) 「동경에서 적대로-신해혁명전후의 대계도와 일본」 『중국근현대사연구』55, pp.75-77  
 36) 謝健(1971) 『戴季陶先生逝世二週年紀念獻詞』(陳天錫 編, 『戴季陶先生文存三續編』),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史史料編纂委員會, pp.289-297  
 37) 이재광(2005) 「戴季陶 思想的 形成背景」 『중국학연구』34, pp.295-296  
 38) 戴季陶, 「謝序」 『文存』第1卷, p.1  
 39) 陳天錫(1969) 『戴季陶先生的生平』 臺灣商務印書館, p.567  
 40) 戴季陶 「日本論」 『再續編』 下卷, p.350

‘통일된 신앙, 통일된 역량’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일본 국민의 ‘자신감’이요 ‘국민정신’이었다. 그래서 戴季陶는 일본헌법학의 대가인 카케이 카츠히고(算克彦)을 존경하였는데, 그가 한 말 중 ‘국민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카케이 카츠히고(算克彦)에게서 받은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한 戴季陶는 중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일본을 연구하는 실력을 길러라.”, “그들과 좋게 지내든, 나쁘게 지내든 그들을 꼭 알아야만 한다.”<sup>41)</sup>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근대화에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었다.<sup>42)</sup>

### 3.2李大釗의 일본유학과 서구사상 수용

李大釗는 정치적 연계를 맺고 있던 진보당의 지도자 湯化龍의 재정적 도움을 얻어<sup>43)</sup> 1914년 1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해 9월 早稻田大學 政治本科에 입학하여 1916년 초까지 2년여에 걸쳐 유학생생활을 하였다.李大釗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早稻田大學에 들어간 것은 당시 여러 방면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清末 일본은 중국인의 유학 열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早稻田大學은 일찍부터 많은 중국인들이 입학하고자 한 중요한 학교였다. 또한 早稻田大學은 중국의 法政界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며 중국의 法政 및 法政敎育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관계와 영향은 와세다 대학의 저명한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가 청말 예비입헌 당시 고문으로 초빙되고 또 民國 성립 이후에는 袁世凱에 의해 법률고문으로 초빙되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sup>44)</sup>

李大釗가 北洋法政專門學校를 졸업하던 시기의 중국 현실은 清末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사상과 문화는 중국 북양정부의 당국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볼 때李大釗에게 北洋法政專門學校 재학시절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배우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李大釗는 집안이 궁핍하여 유학하려면 다른 사람의 원조가 필요하였는데 이 때 지원해준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sup>45)</sup> 또한 유학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4년 12월 중국 教育部의 규정에 따르면 “日本帝國大學에

41) 戴季陶「我的日本觀」『再續編』下卷, p.204

42) 이재광, 앞의 논문, p.308

43) 呂健(1951)『李大釗與瞿秋白』上海, p.3

44) 朱成甲(1999)『李大釗早期思想與近代中國』人民出版社, pp.42-43

45)李大釗는 湯化龍, 孫洪伊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는데, 湯化龍은 1906년 日本法政大學에 유학하였다.(「李大釗遺族之悲慘」『晨報』1927年4月30日)

유학하는 자는 매일 日幣 42元을 내고, 第1-8高等 및 東京高等師範, 高等工業, 千葉醫專은 매일 日幣 32元, 그 외 官費生은 매일 日幣 30元을 납부한다.”고 하였다.李大釗은 자비 유학생으로 적어도 30元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만약 서양의 학교에 유학하였다면 매일 학비는 미국은 80달러, 영국은 60파운드, 프랑스는 400프랑, 독일은 320마르크 정도가 들었다. 이들 국가에 가서 유학하려면 中國銀 500元정도가 필요하였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李大釗에게 있어서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다.<sup>46)</sup>

早稻田大學의 청국 유학생부 장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 “매 학년은 2학기로나뉜다. 9월11일부터 제2년 2월말까지를 前學期, 3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後學期로 한다.” ; “겨울방학은 12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이고 ; 여름방학은 7월 20일부터 9월10일까지이다.”<sup>47)</sup>李大釗가 일본에 유학하던 시기 清朝는 비록 民國으로 바뀌었지만 早稻田大學의 학사일정은 清末에서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李大釗가 일본에 도착한 시기는 1914년 초였고 그가 실제 입학한 시간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1914년 9월이었다. 이렇게李大釗는 정식 입학 전에 대략 한학기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인 일본 학교 중 早稻田大學은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입학조건을 요구하는 학교였다. 와세다 대학이 규정한 수업기간은 다른 학교에 비해 길었다. 학교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預科 수업연한은 1년으로, 일본어와 普通各科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本科에 대한 예비학습의 과정으로 삼는다.” ; “本科에는 政治理財科, 師範科, 商科의 3개 과목을 배정하고, 留學生部 預科 졸업자 및 일본어와 普通各學을 배워 일정한 소질과 수준에 도달한 자에 한해 입학할 허가하며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정한다.” ; “청국 유학생으로 본 대학 大學部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학생부 예과 졸업 후 일본어와 영어를 배워야 하며 또한 본 대학에서 따로 설치한 高等預科를 졸업한 자로서 普通各學에 소양을 갖추고 수준에 부합된 자에 한해 大學部 진학을 허가한다.”<sup>48)</sup> 이렇듯 早稻田大學 大學部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국유학생은 상당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반드시 預科와 本科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高等預科에서 약간의 보충학습을 하여 일본어와 영어에 소질을 갖춘 후 기타 普通各學에 있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도달해야지만 早稻田大學 大學部の 학생이 될 수 있었다.

李大釗의 목표는 早稻田大學 大學部에 바로 진학하는 것이었는데 그 또한 준비과정이 필요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그가 입학 전에 한 중요한 준비과정은 영어를 보충학습하는 것이었다.

46) 朱成甲, 앞의 책, pp.48-49

47) 「清國留學生部章程」光緒三十二年『教育雜誌』第1期

48) 「早稻田大學紀要」光緒三十二年『教育雜誌』第1期

李大釗은 YMCA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살면서 미국인 YMCA 요원인 아더 로빈슨(Arthur G. Robinson)의 영어반에 가입했다.<sup>49)</sup> 早稻田大學은 유학생에게 일어와 영어에 있어서 상당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보충학습은 필요한 것이었다.李大釗은 北洋法政專門學校의 6년 과정을 통해서 이미 외국어와 기타 各學科에 대해 양호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본어는 이미 보충학습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준비과정은 유학생부 장정에서 규정한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입학 전 반년여의 시간 동안李大釗은 영어 보충학습 등의 입학 준비 이외에도 「風俗」, 「物價與貨幣購買力」, 「政治對抗力之養成」 등의 글을 발표하였다. 1914년 9월에 이르러서야 그는 정식으로 早稻田大學에 입학하였다. 하지만李大釗가 早稻田大學에서 정규적으로 학습한 시간은 1년에 불과하였다. 제2학년 1학기인 1915년(大正4년) 하반기에 그는 反袁 활동에 매진하며 정규수업에 잘 나오지 않았고 1916년(大正5년) 2월 2일 즉 제2학년 2학기에 정식으로 자퇴하였던 것이다.<sup>50)</sup>李大釗가 1학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으로는 國家學原理, 帝國憲法, 經濟學原理, 經濟學原理(財政), 近代政治史, 民法要論, 刑法要論, 政治(古典原著研究), 經濟(古典原著研究), 英文練習, 論文이 있었고 선택과목으로는 哲學, 明治史, 제2외국어 등을 들었다. 와세다 대학은 주요 교과과정에 있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서양서적으로 읽고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이 점은李大釗의 학습방식에 매우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李大釗은 서양 사회정치학설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켰으며 이를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sup>51)</sup>

하지만 정치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짧은 유학생생활을 마감해야 하였으므로 그가 서양학설을 연구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짧은 기간 중에도 서양사상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은, 그가 일본유학 이전에 가지고 있던 民衆觀에 변화가 발생하고 동양적 인본주의 사상에서 서양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유학 시기李大釗가 「民彝與政治」를 발표하며 그 안에서 ‘唯民主義’라 불렀던 일종의 민주주의 사상은 그가 『言治』시기<sup>52)</sup>에 가지고 있었던 愚民的 민중관이 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서구사상의 습득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민본주의 사상이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되어 근대적 민본주의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만李大釗의 일본유학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49) 모리스 메이스너(1992)『이대조 - 중국사회주의의 기원』지식산업사, p.32

50) 朱成甲, 앞의 책, pp.52-53

51) 김형열(2012)「근대 지식인의 해외유학과 동아시아 문화교류」『인간과문화연구』20, pp.9-12

52)李大釗의 저작이 北洋法政學會의 기관지 『言治』月刊에 많이 발표되었던 1912-1913년을 ‘言治期’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李大釗 개인으로서 본다면 袁世凱 일파에 대한 옹호적인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里井彦七郎(1957.6)「李大釗の出發 - “言治”期の政論を中心」, 『史林』 163號, 참조)



1년 정도는 입학 전 준비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위해 쓰이고 정작 정규수업에 할애된 시간이 고작 1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李大釗에게 일본은 학문의 습득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 환경을 통해 그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전환시켜 준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李大釗가 유학할 당시 일본은 大正(1912-1926)시대에 접어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농민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는 한편 광대한 중소 자산계급이 군중운동, 즉 大正民主運動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으로李大釗가 다녔던 와세다 대학의 학풍은 국가권력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던 동경제국대학과는 달리 매우 자유스러웠다. 여기에 헌정옹호운동의 발전까지 가세하여, 와세다 대학의 교수들은 강단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널리 알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李大釗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민중과 군중운동에 대한 정치적 의식을 발전시키게 되었으니 바로 이 점에서 일본이라는 정치, 문화 환경이李大釗 사상의 전환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 4. 民國初期 戴季陶, 李大釗의 ‘日本觀’과 동아시아 인식

戴季陶는 일본유학 시기 일본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어 실제로 『日本論』을 통해 일본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고 그의 신념가운데 보여 지는 凡亞細亞主義는 그가 일본의 정치, 경제 역량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나타낸 것이지만,<sup>53)</sup> 귀국 후 일본의 제국주의 행로를 지켜보며 점차 일본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어 갔다. 그는 미국의 군사사상가 Homer Lea가 “무릇 한 국가의 질서가 정돈되어 있고 국력이 자존하기에 충분하면 그 인민은 국외의 확장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는 국민의 自然植民性이다.”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고,<sup>54)</sup> 이를 전제로 일본인의 植民性을 분석하였다. 그는 우선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은 일본이 植民과 殖産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는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sup>55)</sup> 또한 그는 “일본은 세 개의 섬으로 된 소국이지만, 내정이 정돈된 지 오래되었고, 육해군의 힘

53) Herman Mast III & William G. Saywell, “Revolution Out of Tradition: The Political Ideology of Tai Chi-T'ao”, *Journal of Asian Studies*, No.1, 1974, p.74

54) 戴季陶「日本政治方針之誤」『民權報』1912年8月4-5日(桑兵,唐文權 等 合編(1991)『戴季陶辛亥文集』下冊, 中文大學出版社, p.1092)

55) 戴季陶「日英美之新條約觀」(桑兵,唐文權 等 合編『戴季陶辛亥文集』上冊, p.686)

역시 그 국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인구의 증가와 한정된 영토 때문에 결코 대외확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를 향한 침략은) 정치가의 야심이 아니라 국민의 자연식민성이 그렇게 할 뿐이다.”<sup>56)</sup>라고 하면서 일본 대외 확장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본질을 간파하였다. 그는 사실 식민주의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식민국과 피식민국 양측 사이의 호혜관계를 강조하며 침략적이고 극단적인 식민주의 정책을 반대한 것이다. 그는 침략적 수단과 극단적 간섭주의로 확장을 진행하는 일본인에 대해 강력한 불신감을 나타내었다. 설령 武昌起義 당시 중국을 돕기 위해 급히 달려온 일본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도는 실로 중국의 전쟁을 연장시켜 전국이 혼란하게 한 이후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것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인이 중국에서 우려하는 것은 오직 내부의 전쟁이 오래 끌지 않고 질서가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57)</sup>

이와 같이 戴季陶는 일본인의 식민성 및 중국에서의 활동을 고찰한 이후, 일본과 연맹할 여지를 두지 않았고 ‘聯日說’의 출현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였다.<sup>58)</sup>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미 琉球를 병탄하고 臺灣을 점령하고 한국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손을 뻗을 곳은 오직 중국으로 그 세력의 추세는 반드시 중국 내부를 침략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sup>59)</sup> 그리고 그는 장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반드시 국교가 단절되는 때가 올 것이며 일본과의 이익충돌은 결코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일국의 힘으로 중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sup>60)</sup> 또 일본은 황인종으로서 백인종의 세력권에 의탁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에 대해 역시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일본인이 일거에 한국을 병탄한 것은 만주를 병탄하려고 하는 것으로 실로 몽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sup>61)</sup> 일본의 대륙 침략은 “일본의 행운이 아니며 중국의 우환도 아니다. 이는 일본 제국이 쇠퇴하는 징조”라고 확인했다.<sup>62)</sup>

20세기 초 대외확장적인 ‘약육강식’의 국제 조류에서, 이처럼 戴季陶는 일본의 대외확장을 일종의 ‘자연식민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해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섬나라인 일본이 남진정책을 취할 수 없어 오히려 북진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일본 정치방침의 오류이고

56) 戴季陶「日本政治方針之誤」『民權報』1912年8月4-5日(桑兵,唐文權等合編(1991)『戴季陶辛亥文集』下冊, pp.1092-1093)

57) 戴季陶「今日之外交界」『民權報』1912年6月5-7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下冊, pp.919-920)

58) 戴季陶「聯美與聯日」『民權報』1912年7月7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下冊, p.1014)

59) 戴季陶「日本政治方針之誤」『民權報』1912年8月4-5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下冊, pp.1093-1094)

60) 戴季陶「日本人之氣質」『天鐸報』1910年10月17-20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下冊, p.178)

61) 戴季陶「日本人之氣質」『天鐸報』1910年10月17-20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上冊, p.178)

62) 戴季陶「日本政治方針之誤」『民權報』1912年8月4-5日(桑兵,唐文權等合編『戴季陶辛亥文集』下冊, p.1096)

또 단지 침략적인 수단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은 장래에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sup>63)</sup>

한편, 중국침탈이 본격화되는 1915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소위 대아시아주의라는 팽창주의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아시아 팽창주의는 이미 타루이 토오키치(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1893)에서 출발하여 1900년대 ‘支那保存論’으로 중일제휴의 슬로건이 제기되다가 1917년 오데라 겐끼치(小寺謙吉)의 「大亞細亞主義論」으로 이어졌다. 오데라 겐끼치의 대아시아주의론은 백인에 대한 종족투쟁을 위해서 같은 인종, 같은 사상, 같은 문자와 학문, 정치·제도·문학의 역사적 유사성, 무종교, 생활행사의 유사성, 잡혼 등을 들어 중일제휴의 필연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李大釗의 반응은 「新亞細亞主義論」의 주장으로 나타났다.<sup>64)</sup> 그는 1917년 발표한 「大亞細亞主義」를 시작으로 1919년에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再論新亞細亞主義」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일본이 제시한 ‘대아시아주의’의 군국주의적 음모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나름의 ‘신아시아주의’를 제창하며 민족해방에 기반을 둔 호조갱생의 새로운 지역 협력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모색하였다.

李大釗은 먼저 「大亞細亞主義」란 글에서 일본 東京에서 발간된 『中央公論』(1917년 4월호)에 실린 「대아시아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 대해 소개하고 그 논문에 대해 평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는 아시아인에 대한 약탈과 폭력이 단지 서양 민족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를 인정하되 아시아인을 인정하지 않는 비아시아세력”에는 “영국을 위해 극동을 지키는 守門犬” 노릇을 한 일본도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李大釗은 상호 인정과 상호 부조에 의해서만 동아시아의 협력적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대서양주의에 대응하는 대아시아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여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다.<sup>65)</sup> 또한李大釗은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에서 한층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여, 일본의 ‘대아시아주의’가 ‘병탄주의’, ‘침략주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더욱 명확하게 일본이 주창하는 ‘대아시아주의’는 아시아에서의 강대국 간의 연합일 뿐이지 결코 약소국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 ... 주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서양의 대게르만주의와 대슬라브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sup>66)</sup> 따라서李大釗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 대신에 ‘신아시아주의’를 주창하여 민족해방을

63) 장옥평, 앞의 논문, pp.86-88  
 64) 조성환·김용직(2001) 「문명과 연대로서의 동아시아-근대 중국과 한국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한정치학회보』 9집 2호, p.61  
 65)李大釗(1999) 「大亞細亞主義」 『李大釗文集(이하 文集으로 略함)』 人民出版社, p.106  
 66)李大釗(1999)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文集』, p.253

기초로 삼아 현상의 근본 개조를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신아시아주의’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남에게 병탄된 아시아의 민족은 모두 해방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실행해야 하며, 그런 후에 하나의 대연합을 결성하여 구미의 연합과 함께 세 세력이 정립함으로써 공동으로 세계연방을 완성하고 인류의 행복을 더욱 증진해야 한다.<sup>67)</sup>

즉 중국과 약소국 연합이 구미 연합과 함께 정립함으로써 세 세력이 견제를 통해 세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세계 연방을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李大釗의 ‘신아시아주의’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再論新亞細亞主義」였다. 그는 ‘신아시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① 세계 각 민족의 직접적 연합을 위한 제일보가 아시아 민족의 연합이며, ② 아시아 각지의 소연합을 통하여 세계연방으로 향하고, ③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적 압박에 대한 아시아 약소민족의 해방적 운동이며, ④ 친하거나 소원한 차별적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세계연합의 창조에 적응하기 위한 일부분으로서의 아시아주의를 의미하고, ⑤ ‘自治主義’이고 지역 민족이 모두 화합한 ‘민주적 조직주의’이지 ‘폐쇄주의’나 ‘배외주의’가 아니며, ⑥ 일본의 대아시아주의가 파괴되기 이전 아시아 약소민족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파괴된 후에는 아시아의 전 인민이 연합하여 세계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sup>68)</sup>

李大釗의 신아시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사적 기운에도 불구하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아시아주의에 함몰되어 버렸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아시아 연대론은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략의 미사여구로, 또는 저항의 당위적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 당대 지식인의 동아시아론은 그것이 문명론이든 지역 연대론 이든지 간에 현실화의 동력을 가졌다기 보다는 강권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자기인식의 한 노력이라 할 수 있었다.<sup>69)</sup>

67)李大釗, 위의 글, 『文集』, pp.254-255

68)李大釗(1999)「再論新亞細亞主義」『文集』, pp.74-77

69) 김형열, 앞의 논문, pp.23-29

## 5. 맺음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동아시아 신흥 강자인 일본의 실력과 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양무운동을 통해 군사적 자강에 집중해 오던 淸으로서의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하자 朝野를 막론하고 전국 상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적으로 維新의 길을 찾았고, 일본이 강성해진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탐구 결과 일본이 강성해 진 것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문물을 배워오게 한 것이 크게 주효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일본 등의 제도적 개혁을 본받기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는 정책이 확립되었다. 또한 자기반성적 시각에서 청일전쟁 패배의 원인을 일본의 근대적 국민의식과 국가관의 형성에서 찾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중국의 민족성을 개조하고자 하는 일본발 ‘중국상’의 전파가 중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우수성을 본받고자 하는 일본유학으로의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신해혁명 이전 중국으로부터의 일본 유학은 1896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러일전쟁과 과거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1905년 이후 급증하였다. 일본유학은 중국내 학제의 변화로 학당의 교습을 서둘러 중단하고자 하는 국내 상황의 영향을 받아 速成科와 普通科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유학생의 증가로 일본 내 단기 속성과정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유학생의 수준이 떨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청 정부에서는 유학생의 파견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관리하는 유학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신해혁명의 발발로 일시적으로 유학생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중화민국이 설립되면서 제2의 일본유학 고조기가 시작되었고 신생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는 사회의 혼란을 피해 일본유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戴季陶와李大釗는 각각 淸末의 일본유학 고조기인 1905년과 民初의 일본유학 고조기인 1914년 유학을 시작하여 2년에서 4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였다. 戴季陶는 중국의 신식학당에서 제적된 뒤 집안의 도움을 받아 일본유학을 떠날 수 있었고李大釗는 北洋法政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당시 보수와 정치인인 湯化龍의 정치적 후원을 받아 일본유학을 시작하였다. 戴季陶와李大釗가 일본으로 유학 온 것은 일본을 통하여 신식학문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대 중국은 당시 처해있던 낙후되고 수동적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선진적인 국가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다.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신흥의 일본은 중국에게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근대 사회 사조를 철저히 연구하고 근대 인류사회 변혁의 본원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일본으로의 유학은 그 근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근대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진정한 발상지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었기 때문이었다. 동양의 일본은 당시 비록 중국보다는 선진적이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란 실제로는 모두 서양에서 온 것이었으며 일본에 의해 선택되고 체화된, 일본화 된 근대 사상문화였다. 따라서 일견 선진적으로 보이는 일본의 근대문화는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학생들을 통해 학문적 만족감을 전해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학한 중국 지식인들은 일본을 통해 서양의 사상문화를 수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태도의 확립과 사상적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일본유학 경험자인 戴季陶와 李大釗은 일본의 식민성과 그것의 발현인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비판을 가하였다. 20세기 초 대외확장적인 ‘약육강식’의 국제조류에서, 戴季陶는 일본의 대외확장을 일종의 ‘자연식민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해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섬나라인 일본이 남진정책을 취할 수 없어 오히려 북진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일본 정치방침의 오류이고 또 단지 침략적인 수단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은 장래에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李大釗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그것이 ‘침략주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신아시아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는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아시아주의’가 결국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을 병탄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아시아를 아시아인의 아시아가 아닌 일본인의 아시아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는 신아시아주의를 통해서 아시아의 약소국과 약소민족이 먼저 연합하여 대연합을 달성하고, 피압박민족의 대연합을 통해 식민주의적인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를 파괴하며, 결국에 가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연합하는 세계 조직에 가입하여 세계 연방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李大釗은 그가 유학을 통해 서양의 근대문명과 사상을 받아들인 일본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고, 민족해방과 민족 공조 그리고 세계 민족의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연합과 세계 연합을 이루어 내하고자 하였다.

### 【參考文獻】

- 모리스 메이스너(1992)『이대조 - 중국사회주의의 기원』지식산업사  
 沈雲龍(1978)『清末各省官自費留日學生姓名表』文海出版社  
 舒新城(1981)『中國近代教育史資料』上冊, 人民教育出版社  
 朱有曦(1987)『中國近代學制史料』第二輯 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沈殿成(1997)『中國人留學日本百年史(1896-1996)』上冊, 遼寧教育出版社  
 朱成甲(1999)『李大釗早期思想與近代中國』人民出版社

譚汝謙, 林啓彥(2012)『中國人留學日本史』北京大學出版社  
김형열(2012)「근대 지식인의 해외유학과 동아시아 문화교류」『인간과문화연구』20  
劉建輝(2001)「근대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성립과 전개」『일본문화연구』5  
桑兵(2011)「신해정변과 일본」『중국근현대사연구』52  
양희정(2012)「청말 일본으로의 유학생 파견과 일본어」『중국근현대사연구』54  
윤미영(2012)「추근의 일본유학과 혁명활동」『일본문화연구』44  
이재광(2005)「戴季陶 思想의 形成背景」『중국학연구』34  
장옥평(2012)「동경에서 적대로 - 신해혁명전후의 대계도와 일본」『중국근현대사연구』55  
조성환·김용직(2001)「문명과 연대로서의 동아시아-근대 중국과 한국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한정치학 회보』9집 2호  
Herman Mast III & William G. Saywell(1974) Revolution Out of Tradition: The Political Ideology of Tai Chi-T'ao, Journal of Asian Studies, No.1

---

논문투고일 : 2013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0일

---

---

 <要旨>
 

---

## 清末民初 中国知識人の 日本留学과 동아시아 인식

- 戴季陶와李大釗의 일본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淸은 변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적으로 維新의 길을 찾았고, 일본이 강성한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탐구 결과 일본이 강성한 것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문물을 배워오게 한 것이 크게 주효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일본 등의 제도적 개혁을 본보기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는 정책이 확립되었다. 戴季陶와李大釗은 각각 清末과 民初의 일본유학 고조기인 1905년과 1914년에 유학을 시작하여 2년에서 4년 동안 유학생생활을 하였다. 戴季陶는 일본유학 시기 일본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어『日本論』을 통해 일본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지만 귀국 후 일본의 제국주의 행로를 지켜보며 점차 일본에 비판적으로 변화하였다.李大釗 또한 일본이라는 정치, 문화 환경 속에서 서양의 근대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된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후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그것이 ‘침략주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신아시아주의’를 주창하여 민족해방과 민족공조를 이루고자 하였다.

##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Studying in Japan and Perception of East Asia

- Focused on Experience of Dai Ji-tao and Li Da-zhao -

When the Qing dynasty was defeated by Japan in the Sino-Japanese War, Chinese intellectuals started finding out the way that China would be strong and Japan had been strengthened. And They found out the reason of being powerful of Japan, that's because Japan had been sending the students to west to learn more advanced and modern culture. So Qing dynasty formulated the policy encouraging Chinese intellectuals to study in Japan,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movement to study in Japan by Chinese intellectuals had been booming in early 20th century. Dai Ji-tao went to Japan to study in 1905 and Li Da-zhao went to Japan to study in 1914, the booming years to study in Japan both in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of China. During studying in Japan, Dai Ji-tao had been attracted in Japanese characteristic and superiority. But after coming back homeland, he changed his attitude to Japan and criticized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Japan had started walking down the road of imperialist. After studying in Japan, Li Da-zhao accepted western style democracy through Japanese modern academic circumstance but strongly opposed 'Pan-Asianism' that several intellectuals in Japan insisted at that time. And he advocated 'New-Asianism' that insist alliance of weaker nations and resistance to 'Pan-Asianism'. Eventually he proposed world alliance in that allied weaker nations tried to join. In terms of nation he tried to correct the ways of Japan's foreign policy, even if he accepted modern political thought during his stay in Japan.